

광주시 '남도관광센터' 관광 거점 우뚝…3만명 방문 '북적'

전일빌딩 245 위치…매출 5000만원 돌파·홍보 효과 톡톡
올해 예산 1억5000만원 투입…G-페스타 연계 마케팅 강화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 2층에 자리한 '남도관광센터'가 지난해 3만명이 넘는 방문객을 끌어모으며 지역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

광주시는 올해에도 지역 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관광 활성화를 이끈다는 구상이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남도관광센터의 지난해 11월 기준 누적 방문객 수는 3만464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방문객 수인 2만8890명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로, 2022년(1만9038명)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성장한 규모다.

방문객 증가는 곧장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 센터 내 관광기념품 판매액은 11월 기준 5280만 9000원을 기록해 전년 연간 판매액(5134만 1000원)을 이미 넘어섰다.

현재 센터에는 아트마켓(75개), 오매나 굿즈(52개), 디자인진흥원 굿즈(41개) 등 총 191종의 다양한 관광 상품이 입점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불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2025 광주방문의 해'와 연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하늘마당에 '오매나 포토존'을 설치하고, 온·오프라인 활성화 이벤트를 3차례 진행해 1838명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홍보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평가다.

광주시는 올해도 남도관광센터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 1월부터 12월까

지 광주시관광공사가 위탁 운영을 맡으며, 총 1억 5000만원의 비용이 투입된다.

운영 시간은 전일빌딩245 복합문화센터와 연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문을 연다. 다만 설날, 추석 당일은 휴관한다.

올해 운영의 핵심은 지역 상생과 마케팅 강화다. 센터 내 '아트마켓'은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입점 및 위탁판매 수수료 없이 운영된다. 시는 모집 공고를 통해 약 20개 업체를 선정하고, 80여 개内外의 공예 및 디자인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관광 홍보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미디어존에서는 광주관광 정보를 360도 영상으로 연출하고, 홍보관에서는 '남도한바퀴' 등 광주와 전남을 아우르는 다양한 여행 테마를 소개한다. 또한 광주 대표 캐릭터인 '오매나'를 활용한 굿즈 판매와 포토존 운영을 통해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G-페스타, 시즌별 이벤트, 전일빌딩 문화행사 등 지역의 굽직한 행사와 연계한 이벤트를 기획해 내방객을 적극 유치하고,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일빌딩245와 ACC 등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종합적인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복합문화공간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수리 부엉이



너구리



소쩍새

광주 도심 속 '야생동물 응급실'… 지난해 700마리 생명 구했다

광주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수달·팔색조 등 총 4062마리 구조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지난해 개소 이후 처음으로 연간 구조 실적 700마리를 넘기며 도심 속 야생동물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4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센터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73종 712마리의 야생동물을 구조했다.

이는 2019년 센터 문을 연 이래 연간 최대 구조 기록이다. 구조된 동물 중 36.7%에 달하는 261마리는 집중 치료와 재활 과정을 거쳐 건강하게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다.

지금까지 센터가 구조한 야생동물은 누적 4062 마리에 달하며, 이 가운데 1435마리가 생명을 되찾고 방생됐다.

구조된 동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도심 생태계의 다양성을 엿볼 수 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 위기 야생동물인 수달, 팔색조, 수리부엉이 등 희귀종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둘기, 치박구리, 까치, 너구리, 족제비 등 친숙한 동물들이 포함됐다.

구조 실적 증가는 다자거나 고립된 동물을 외면하지 않은 시민들의 투철한 신고 정신과 소방서, 자치구 등 유관기관의 신속한 공조가 빛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유리창 등 인공 구조물 충돌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꼽히면서 인간과 동물의 안전한 공존을 위한 도시 환경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센터는 특히 번식기인 3월부터 9월 사이 무분별

한 '과잉 구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시기는 새끼 동물들이 둑지를 떠나 비행과 먹이 활동 등 생존 기술을 익히는 '이소' 단계로, 이를 조난으로 오인해 셀룰리 구조할 경우 오히려 동물의 야생 적응 기회를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현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구조 건수가 늘어난 것은 사고가 많았다는 의미에서 안타깝지만, 예산으로 시민들의 생명 존중 의식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방증"이라며 "앞으로도 도심 곳곳에서 위기에서 저항한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즉시 센터로 연락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야생동물센터협의회는 광주센터의 이러한 야생동물 보호 공로를 인정,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열린 자연보호현장 선포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동물 학대 감시할 '명예동물보호관' 찾습니다

광주시, 12일까지 8명 추가 모집

광주시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동물 학대 예방 감시망 강화를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명예동물보호관'을 확충한다.

광주시는 오는 12일까지 명예동물보호관 8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시에서는 27명의 명예보호관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주가 선별을 통해 인력을 총 35명까지만 늘려 운영할 방침이다.

선발된 보호관들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하거나, 위기애에 처한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등 현장 중심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아울러 동물 복지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

과 상담, 지도 점검 등 지역 사회 내 인식 개선을 위한 '동물 지킴이' 역할도 맡는다.

지원 자격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다만 공고일 기준 광주에 거주하지 않거나, 과거 동물 학대 혐의로 형이 확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시정 능동형동물복지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 심사를 거쳐 오는 1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위촉된 명예동물보호관의 임기는 3년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산구, 민원 접수 전에 해결한다…현장 중심 행정 구축

박병규 청장, 새해 1호 결재 '민원 전(前) 민원 해결 1004'

박병규 광주시 광산구청장이 2026년 별도로 새해 첫 업무로 시민의 불편이 민원으로 접수되기 전에 미리 찾아내 해결하는 선제적 행정 시스템 구축을 선택했다.

광산구는 박 청장이 새해 1호 결재 안건으로 '민원 전(前) 민원 해결 1004' 추진 계획에 서명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사진〉

이번 시책은 '행정은 기다리는 권력이 아니라 움직이는 책임'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이제 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강조했던 '민원 발전' 중심의 적극행정 철학을 구현에 접목한 결과물이다.

핵심은 행정의 패러다임을 기준의 '사후 처리' 방식에서 '사전 발굴 및 선제 해결'로 180도 전환

하는 데 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작된 '찾아가는 경정 구청장실'의 가치를 확장해 행정이 먼저 보고, 듣고, 움직이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구는 접수 이전 발견, 현장 우선, 시민·행정 연결, 신뢰 축적 등 4대 원칙을 수립했다.

실행 동력은 관내 21개 동과 구청 부서 간의 수평적 협력이다. 각 동은 동장과 일선 공무원들로 구성된 '1004 생활현장 책임팀'을 가동, 통화로와 경로당, 전통시장 등 주민 생활 동선을 출발해 살피며 '숨은 불편'을 찾아내는 역할을 맡는다.

구정 각 부서 역시 접수된 민원 처리에만 매몰되던 관행을 깨고, 잠재된 위험 요소를 먼저 제거하는 시스템을 정립하기로 했다.

박병규 청장은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행정이 갖춰야 할 진짜 실력이자 주민 신뢰를 얻는 지름길"이라며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내는 현장 중심 행정으로 혁신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개>

* QR코드: 법원경매정보원으로 접속됩니다.

법원경매정보원은 법원경매정보원으로 접속됩니다.